

# 푸드테크 3D 식품프린팅 산업 발전 가능성 모색

### 전주시·전북자치도, 푸드테크 분야 산·학·연 전문가 참여 심포지엄 개최... 기술 동향·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식품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 3D 식품프린팅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3D 식품프린팅이란 식재료를 인크처럼 활용해 디지털 설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요리를 만드는 기술로, 개인별 영양 설계와 대체육 개발, 창의적인 요리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푸드테크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김상남 원장)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은미 원장)은 1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푸드테크 분야 유관기관과 대학,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3D 식품프린팅 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개인 맞춤형 식품과 디지털 기반 식품 생산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개발 현황과 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식품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푸드테크 분야 유관기관과 대학,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 3D 식품프린팅 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식품 3D 프린팅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화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박보람 국립식량과학원 박사는 '식품 3D 프린팅 기술 동향 및 연구 개발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최신 연구개발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이산홍 (주)엘에스비 대표는 '맞춤형 푸드 프린팅 산업 적용 사례 및 사업화 가능성'을 주제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범근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좌장으로 박보람 국립식량과학원 박사와 이산홍 (주)엘에스비 대표, 이인환 충북대학교 교수 등이 패

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3D 식품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푸드테크 산업 적용과 응용, 공감대 확산 필요성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패널들은 식품 3D 프린팅 기술이 개인 맞춤형 식품 생산과 고령친화 식품, 기능성 식품, 대체식품 분야 등 미래 식품산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주시 지역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상남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푸드테크 3D 식품프린팅 기술의 산업적 가능성과 미래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식품·농생명 산업 기반과 첨단 푸드테크 기술을 연계해 미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본부장 이종식)는 19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 “주거취약계층에 희망과 온기를”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후원금 300만원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본부장 이종식)는 19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는 대청댐·용담댐·보령댐·부안댐 등 4개의 다목적댐과 금강을 수원으로 하는 10개 광역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해에 이어 2년째 이어진 것으로, 사회공헌 기금 및 금강유역본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마련됐다. 금강유역본부 임직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

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구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후원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민·관 협력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에너지 절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에너지 안전키트' 제작·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종식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와 사회변화에 대응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 녹지대 유지관리로 정원도시 완성도 높인다

### 전주시 덕진구, 6개 권역 총 3회 걸쳐 일제 정비 실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는 정원도시 전주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단정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가로수와 시설녹지,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돕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사업 구간을 △동부 △중부 △북부 △예교 △역신 △만성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동시 발주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잡초의 생육이 왕성한 5~8월 중 2차례, 오는 9~10월 중 1차례 정도 집중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작업 내용은 녹지시설물 내

에·제조 작업과 주변 환경 정비 등으로, 이를 통해 도로와 연계된 덕진구 전역의 녹지 공간을 빈틈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섭 덕진구청장은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은 시기성이 중요한 만큼 권역별 동시 정비를 통해 신속하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작업 중 도로변 주차차 차량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한 작업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주시 우수 기부기업 5곳에 감사패 전달



평소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해온 5개 기업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해온 5개 기업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 이하 사랑의열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랑의열매는 19일 전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물품 기부와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 온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 기부기업은 △(주)휴비스 전주공장 △법무법인 백재 △전북도시가스(주) △주식회사 성실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등 총 5개 사다. 이들 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주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업 및 유관기관들과의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기부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기부기업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전주시 역시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문화 확산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덕진구, 안전한 도로 환경 위해 교량 보수·보강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가 주요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공용 연한을 늘리고,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키로 했다. 구는 올해 총 19억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은2교와 소양교 등에 대한 교량 보수·보강 및 삼례교(신교)와 소양교 등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구는 만경강을 가로지르는 삼례교(신교)에 대해서는 올해 약 4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진 발생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량받침 교체 등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구는 시민들이 교량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월2교의 신축이음 교체 공사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구는 덕진구 관내 교량에 대해 집중 안전 점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계획을 추가 수립 및 시행하는 등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기섭 덕진구청장은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한 철저한 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해 교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은 공정도 예산 확보와 병행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